15_36_K_日吉大社大宮橋

히요시 다이샤 오미야교
중요문화재
[A.D.1699]

오미야교는,니시혼미야[별명: 오미야]로 향하는 참배길의 오미야강에 걸쳐 있는 돌다리입니다.
16 세기 후반에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[1537-1598]가 나무다리를 보냈다고 전해지고
있습니다만,1699 년에 돌다리로 다시 지었습니다.
그 때 나무다리 형태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.
폭 5 m,길이 13.9m 입니다. 양쪽에 돌을 파낸 난간이 달려 있고,히요시 삼교 중에서 가장
정교하고, 화려합니다.
오미야교,니노미야교,하시리이교를 합쳐서 「히요시 삼교」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